

복음의 진수를 보여준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으로 여는 빌레몬서-

사무엘상24:4-10, 빌레몬서1:7-12

정윤돈 목사님

오늘은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복음의 진수를 보여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여러분, 복음과 복음적인 삶은 다르다. 복음과 복음화는 다르다. 복음은 완벽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 되도록, 가정이 복음을 다 믿었지만 복음화 되지 않은 경우는 많다. 우리 교회도 복음이 있지만 복음화 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위해서 도전하고 갱신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착한 남편, 아빠여서 잘못을 해도 참고 넘어간다. 그런데 가끔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젠 말해야겠다.' 아내입장에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그 때 복음이 필요하더라. '복음은 내가 받고 은혜는 저 사람이 받으니까 너무하다. 차라리 복음 없었으면 좋겠다. 편하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지나가보면 그게 다 좋은 것 같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으니 끊임없이 도전해서, 남편, 아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지교회 하시는 분이 식사하자고 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어려서 다 맞고 자랐는데 어머니가 자녀를 훈계를 하면서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때 자녀를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하다고 한다. 지금 시대는 달라졌다. 절대 자녀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도 요새는 잘 안 때린다. 구약에는 많이 때리시는데.(웃음) 절대 부인 때리면 큰일 난다. 말씀도 잘 해야 한다. 존경하는 마음으로.(웃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나눌 빌레몬서는 사도바울이 기록한 신앙성경가운데서 짧지만 복음과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이것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다. 그러나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화된 내용이다. 어떻게 보면 적용인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이런 응답들이 있기를 축복한다. 짧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과 인물 빌레몬, 바울, 오네시모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델로 삼고 본받아야 할 복음의,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빌레몬서는 사도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구금되어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이다. 이 오네시모는 콜로새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주고 로마로 도망 온 노예였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사도바울을 로마에서 만나게 하신 것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해볼 수 있겠다. 첫 번째로는, 사도바울이 셋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감옥은 아닌 것이다.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다 탕진하고 체질을 못 버리고 또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마침 '여기에 계셨어요?' 하고 바울과 원래 알던 사람이라고 상상해보자. 자기 주인을 복음으로 양육한 것을 본 오네시모일 수도 있다. 이 상상은 맞지 않은 것은 셋집, 감옥이 아닌 부분 때문이다. 또 두 번째 경우는, 로마에 와서 다 탕진을 했다. 사도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너무 힘들고 쫓겨서 '이렇게 도망 다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도바울에게 가서 거기서 성경공부를 하고 다시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자기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했을 수도 있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도바울을 만났을 수도 있다. '노예로 왜 여기 와있어? 듣자하니 훔쳐서 도망갔대며.' 하면서 우연히 만날 수도 있다. 그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다. 어쨌든 사도바울을 만나 다시 복음을 듣게 되었다. 생각해보라. 과거에 콜로새지역에서 자신은 노예가 아니었는가. 장로님 한 분이 1월부터 회사에서 지교회 해달라고 해서 가기로 했다. 사장님이니 오라고 했다. 그러면 앉아있을 수는 있다. 사실적으로 나의 복음이 안 되지 않은가. 오네시모가 자기의 복음이 아니었는데 잘못을 하고 로마까지 와서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과정, 바울을 만나서 '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내가 언약의 말씀을 놓칠 때, 그렇게 다락방할 때는 줄더니 사단이 혹 들어가서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도둑질하다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복음이 네 것이 되어야 한다. 사단은 도둑놈이야. 살인자야 피해를 주는 존재야.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속지 말아야 해. 내가 글을 써줄 테니 다시 돌아가서 해방 받아라.' 그렇게 했던 것 같다. 부모님의 복음, 부인의 믿음이 나의 것이 되는 과정, 전환점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어려움 없이, 큰 상처 없이, 큰 실책 없이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특별히 램프들은 오네시모처럼 도둑질하고 큰 피해를 주고 깨달아서야 되겠는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 작은 것에서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성경에서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꼭 체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한다.

그러나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간 종은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인의 용서와 사면이 없으면 해방 받지 못한다. 복음을 받고 마음은 편할 수 있다. 근본은 알았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지만 해결할 부분은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망자가 되었으니 '내가 이 글을 써줄 테니 너는 가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분이요.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 순 없지 않나.'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써서 콜로새까지 가게 했던 것이다. 본문에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이 어떻게 이런 복음의 진수를 보여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복음의 진수를 보여준 제자는 빌레몬이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1) 빌레몬은 자신의 집에 교회를 세운 중직자였다. 이것부터가 다르다. 내가 어렸을 때 보면 11시 예배를 드리고 대예배까지 드렸는데 어머니는 항상 2,3시 되면 은퇴한 최대성 목사님, 이기동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주일 오후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평일에는 제단을 쌓는다고 해서 권사님들을 모셔서 집에서 항상 예배드린다. 돌이켜보니까 우리 4명의 형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도 갈등 없이, 빠져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이 평탄하게 신앙생활 잘 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의 집을 미션홈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직장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몬1:2 후반절에 보니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교회 전체, 가정 전체, 성도 전체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이다. 몬1:2에 보면 '자네 암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에 나오는 암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보고 있다. 아킵보는 그 이름의 뜻이 '마부'라는 뜻이다. 말을 돌보는 종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 마부를 '우리와 함께 된 아킵보' 라고 말한다. 빌레몬은 이렇게 온 노예와 가족까지 복음의 제자로 만들었던 삶의 모델적인 중직자였던 것이다. 빌레몬을 여러분의 삶의 모델로 삼기를 바란다.

(2) 자신을 배신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을 받아서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유의 신분을 주었다. 그리고 2세기 초에 발견된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쓴 글을 보면, 골로새는 한 지역이었다. 그 때 당시 수도역할을 했던 곳이 예배소였고 예배소에 가장 큰 예배소 교회였는데, 쉽게 말하면 골로새는 수원정도이고 예배소는 서울인데 이그나티우스의 글을 보면 그 예배소 교회에 감독이 바로 디모데였다. 디모데를 이어서 감독이 된 사람을 오네시모로 보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감독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글이 나와 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제자들, 일꾼이 나왔을까. 바로 중직자 오네시모의 믿음 때문이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 라는 뜻이다. 한국도 그랬지만 종이나 노예에게는 이름이 없다. '개똥이' 혹은 그냥 '마당쇠' 이지 않은가. 주석에 보면 오네시모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도바울의 편지를 보면 '원래 우리는 유익한 자가 아니었으나 우리는 유익한 자다.'나와 있다. 오네시모는 보면서 '이 나쁜 놈.' 하면서 욕했을 것이다. '너는 자유자다.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사도바울이 심복이라고 하니, 다시 로마에 가서 훈련받아서 세계복음화를 해라.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너의 이름도 붙여주겠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또 변질되지 말고 오네시모가 되어라.' 하면서 이름까지 붙여준 것 같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작은 피해를 줬을까, 큰 피해를 줬을까. 빌레몬은 부자이다. 백만 원, 천만 원 도둑질 당했다고 해서 큰 피해가 없다. 이해하고 용서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부도나고 망해버릴 정도로 곳곳에 어음을 날려서 피해를 줬다. 오네시모는 아마 똑똑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해먹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까지 갈 여비가 있었다. 머리를 나쁜 데에 쓰면 안 된다. 살리는 곳에 써야 한다. 그러니까 작은 피해를 줬을 때는 넘어갈 수도 있었다. 그런데 재산을 완전히 날려버린 것이다. 회사를 완전히 망하게 했는데 용서해준다는 수준이었다. 이것은 완전 복음화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다른 교회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해주면서 이런 말을 한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피해를 줬습니다. 목사님, 장로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나는 '고발하고 감옥에 넣으세요.' 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오늘 말씀이 오네시모이다. 내가 일주일 전이었다면 오네시모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웃음) 우리 앞에 상황이 닥치면 말쑥이 안 떠오른다.(웃음) 상황에서는 같이 욕해줘야지 '참으세요.' 치유가 된다. 지난번에 목사님들이 차타고 가는데, 성화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쌍소리를 막 하신다. 옆에 있으면서 '목사님들이 저렇게 해도 되나.' 생각했는데 앞에 계신 목사님이 '아 치유되네.' 하신다.(웃음) 결론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결론은 복음으로 내시기를 축원한다. 어떤 분은 미움 자체가 없다. 화를 내지를 못한다. 체질이 저러니 참 감사하다. 그러한 체질까지 변화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복음의 진수에 이르는 것이다. 신앙의 성장단계는 천 단계, 만 단계가 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보다 천만 배 더 깊다고 한다. 그 영적의 서밋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3) 자신을 양육한 목회자의 중요한 부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오네시모가 준 편지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 때 '장로님, 그래도 이해하시죠.' 할 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다. 대학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목사님에게 허락 받고 교제를 해라.' 가장 중요한 시간표이다. 교제를 하고 안 하고 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청년시절에는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때 목사님의 이야기를 안 듣고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할 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끊는 것이다. 그것은 뭐가 하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한 번 나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것이다. 이 아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다. 이 남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다. 그 개인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결정했느냐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 결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다 응답받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믿음의 진수이다. 오늘 빌레몬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어떤 성도들은 내가 부탁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이 있다. 어떤 분에게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세요.' 해도 상처 안 받는 분이 있다. 모든 분이 우리 참사랑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당백을 하셔야 한다. 이러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당백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으로 이 은혜를 받았으니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복음의 진수이다. 몬1:19에 보면 사도바울이 약간 협박조로 이야기 한다. '내게 빛진 것은 내게 말하지 않겠노라.' 사도바울도 약간 성격이 있는 것 같다. 그냥 하지, '오네시모에게 빛진 것을 내가 갚겠다. 나에게 칭찬해라.' 돈도 없으면서.(웃음) 거의 협박이다.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빛진 것은 내가 너에게 청구하지 않겠다.' 그러나 빌린 것도 없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겠는데. 준 것은 말씀과 구원밖에 없는데.(웃음) 그런데 그런 제자였다는 것이다. 무슨 의도인지 알았던 것이다. 이것은 대단한 말씀이다. 빌레몬은 사도바울에게 받은 복음을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 소중한 은혜의 빛, 구원의 빛으로 생각할 정도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소용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내가 있을 집을 마련하라고 한다. '언제 내가 빛졌다'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빌레몬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맞다.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말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물질적인 것 가지고 그래서 되겠는가.' 생각한 것이다.

(4) 그러므로 빌레몬은 세상의 제도와 법과 육신적인 이익과 손해까지 뛰어넘을 정도로 복음이 체질화된 복음화 된 사람이었던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시대 앞에서 복음의 진수를 보여줬던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목사님들도 20년 훈련 받았는데 조금 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은 짧은 시간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이르기를 축복 드린다.

(5)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지역에서 교회를 하고 많은 종들을 부릴 정도로 부자였지만 겸손히 에베소까지 가서 말씀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의 거리는 50~100km정도 된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까지 가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받았던 것이다.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증거는 아가 아킵보(마부), 마부의 말을 타고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 따라다니며 함께 들던 마부가 좋은 제자로 변화되고, 아킵보(마부)는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된다. 한국에도 그런 예가 있다. 자기 노예였는데 목회자로 만든 일이 있다.

2. 복음의 진수를 보여준 제자는 오네시모이다.

(1)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산을 착복하고 로마까지 도망간 노예였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었다. 도박과 중독과 같은 자신의 악습을 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오네시모처럼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나쁜 체질, 중독을 바꾸고 끊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오네시모는 빌레몬보다 100배 1000배 더 어려웠을 수도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나의 잘못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은 안 보인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다. 인정을 하지 않는다.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다.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남의 것을 도둑질 하는 것은 별로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던지, 우리의 체질이 불신앙의 체질, 마귀의 체질이다. 부부가운데도 마찬가지이다. 부부사이에 무슨 자존심이 센지, 미안하다는 말도 못 한다. 진실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한다. 많은 청소년 사역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다시 고무줄처럼 돌아간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변화되어서 가서 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대도 조세형은 목사까지 되어서 간중하면서 전국을 다녔는데, 일본에 가서 또 도둑질하다가 잡혔다. 그만큼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복음으로 각인, 체질, 뿌리가 안 바뀌는 것이다. 그 만큼 어려운 것이다. 근본적인 것이 완전히 변화하여서 새롭게 체험이 되는 어려움이 되기를 바란다. 한 청년에 엇그제 해외 출장에 갔다가 대정부의 다락방사역모임에 와서 간증을 하더라. 어떤 사람과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옆에서 큰 회사 회장님이 가만히 듣다가 그 다음날 와서 '우리 부인은 큰 교회를 다니는데 집에 와서 불교 말을 듣고 있다.'고 한다. 자신도 1년 동안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한국에 왔더니 교회에서 다른 이야기만 하니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여겨져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자네가 말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교회에 갈 이유가 있는 것 같으니 설명을 해달라고 하며 5시간 동안이나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와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한다. 이렇게 현장에 예비 된 사람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과거, 영적인 문제를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돈도 많고 사업도 어려운데 왜 요새 공허하고 힘든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랬습니다.' 하면서 포럼을 잘 한 것 같더라. 이처럼 여러분이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현장에 문이 열릴 수 있다. 증인이 되시길 축원 드린다.

(2) 그는 사도바울이 자신의 심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도자의 충성된 제자로 거듭났던 것이다. 그런데 다투는 모습을 봐라. 못 되어먹은 자기의 상관, 악한 왕이 있는데 여러분은 다투처럼 다 용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학교, 교회, 직장 안에서도 사울처럼 못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복수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기름부음을 꼭 왕에게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 상관, 부모님에게 다 기름부음을 하신 것이다. 칼빈이 말하기를 '직업 소명설'을 이야기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다투처럼 어디를 가든지 살려내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주께 맡기시길 축원 드린다. 그렇다면 결국 왕 자리에 주역으로 여러분이 오르게 된다.

3. 사도바울은 복음의 진수를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1) 바울은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관계였지만 강요하지 않고 겸손히 부

탁했다. 몬1:8에 보면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몬1:9를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 약간의 협박도 하긴 했다.(웃음)

(2) 바울은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불신 상태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던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전도자였다. 여러분도 이 사역을 삶속에서 하셔야 한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사도바울은 도망자였던 오네시모를 몬1:10에 보면 '아들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가 나온다. 우리 장로님들은 램프들을 다 복음전하고 영향을 주어서 아들같이 만들어야 한다. 몬1:11을 보면 복음으로 '무익한 사람을 복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몬1:12를 보면 '심복으로' 까지 변화시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이다.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의 심복을 만들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3)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관계를 회복시켜줬다. 인생을 살다보면 3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 내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중간에서 중재해야 할 때가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두 가지로 나온다. 첫 번째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이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중재해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원 드린다. 내가 알고 계시는 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을 뵈어서 이야기를 해보니 그 분이 자기 담임 선생님이셨다고 하는 것이다. 자신이 다니던 학교가 여자상업고등학교였는데 학급반장과 반에서 항상 1등을 하는 아이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해졌다고 한다. 그 계기는 편지 때문이었다고 한다. "나는 네가 똑똑하고 너하고 친하고 싶은데 시기 질투가 많아서 미안해 그런데 우리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겠니?"라는 식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은 그 다음 날부터 이 막 친하게 지내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서 "그 때 편지 줘서 고마워." 하니까 "나 편지 안 썼는데?"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아보니 담임선생님이 서로에게 서로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결국에는 목회자의 길까지 가게 되신 것이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삶을 감당하도록 축원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CVDIP. 언약, 비전, 꿈, 기도, 실천이 중요하다. 한 번 적용해보겠다.

(1) 언약이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알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축원 드린다.

(2) 비전이다. 237개 나라에서 일천만 제자를 세우는 비전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안 되고 부족하더라도 현장에 가면 얼마든지 예비 된 자가 있다. 조금만 누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주신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한 제자를 그 현장에 예비해두셨다. 그 눈을 가지고 '오늘은 내가 체험한 것을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기막히게 우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16장의 인물을 만난 것처럼 말이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그분들에게만 있으라는 법이 있는가. 포럼을 하면서 '저런 하나님의 역사다.'하며 느끼는 것이 많다.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체험이 날마다 있기를 축원한다. "사실은 내 고백인데..."하며 그 언약을 붙잡고 포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것을 들으면서 '이 일과 만남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생각한 적이 날마다 5번 이상은 있다. 저녁에 가만히 묵상을 하다보면 이 만남, 이 사건도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나는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행복하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셨다. 한 번 묵상하면서 찾아내서서 복음의 진수를 보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 드린다.

(3) 꿈이다. 우리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세 인물처럼 영적인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꿈을 항상 꾸면서 도전해야겠다.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체질 영적 서밋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그 안에 물질도 명예도 다 있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그것이 없어도 될 정도로 말이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잃어도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와 모두가 부자가 되고 잘 되어서 전 세계에서 선교해야 한다. 지금이 초대교회였다면 '우리 다 순교합시다.' 했을 것이다. 지금은 그런 시간표가 아니다.

(4) 기도이다. 이미지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의 후대 램프들이 복음의 진수를 누리며 보여줄 수 있도록 무시로 24시 기도해야겠다. 이것을 멈추면 금방 속는다.

(5) 실천이다. 오늘 메시지를 계기로 오네시모의 치유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사역을 해야겠다. 오네시모 치유사역이 무엇인가. 교도소사역이다. 지난번에 간증을 들어봤더니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정기적으로 교도소 사역을 하셨다고 한다. TV에 유명한 살인자가 나오면 꼭 찾아가서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 우리가 복음 안 전해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다. 마약, 도박, 알콜 중독, 인간관계를 치유하는 상담의 사역, 이 응답을 계속 받기를 축원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전문성과 관심 있는 후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조를 만들어야겠다. 청소년들 중에서도 오네시모와 같은 시간표의 아이들이 많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보면 청년, 램프였을 것이다. 사도바울이 중직자 사역, 램프 사역을 한 것이다. 이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하며 복음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 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았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 복음이 체질화되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심복으로, 교회의 심복으로 변화시키고 양육하는 사역자로, 제자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